

검정고시 시험장 6개 권역으로 확대

도교육청 “응시자 접근 편의 높이고 평생교육 실현 기회 늘리기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도부터 검정고시 시험장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시험장 접근 편의를 높여 응시율을 제고하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시험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만 4곳의 시험장이 설치·운영돼 타 지역 응시자들의 시험장 추가 설치 요구가 지속돼 왔고, 특히 원거리 거주자들의 시험장

도착 지역으로 결사 발생이 높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14개 시군을 6개 시험권역으로 구분해 검정고시를 치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권역 전주·완주·김제, 2권역 군산, 3권역 익산, 4권역 정읍·고창·부안, 5권역 남원·순창·임실, 6권역 진안·장수·무주로,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등이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6개 권역별

검정고시 시험장 운영은 응시자의 시험장 접근 편의를 높이고, 평생교육 수혜 및 실현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청 고시관리담당이 운영하는 시험운영전문인력풀을 시험 권역으로 분산 배치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정고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정고시 응시자수는 2022년도 1회 1,068명·2회 1,011명, 2023년 1회 1,072명·2회 1,111명이었다. /정은성 기자

학생과학발명품경진

전북 학생 18팀 수상

장수중 김은재 ‘최우수’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장수중학교 김은재 학생(2년·지도교사 서경원)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14면>

이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7일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원장 김정옥)에 따르면 이번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전북은 최우수 1팀, 특상 2팀, 우수 7팀, 장려 8팀 등 총 18팀이 수상했다.

앞서 전국대회 출품을 위해 치러진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는 총 477작품이 출품, 최종 191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이 중 지레의 원리와 비위를 적용한 뽑이수레로 밀푼을 쉽게 뽑고, 좁은 고랑을 다니면서 비료와 퇴비, 그리고 수확한 농작물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고안한 ‘지레의 강점을 체중으로 극대화시킨 콘티박스 언빈형 뽑이수레’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옥 원장은 “전국대회 출품 전까지 열심히 노력해 준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및 발명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는 지난 2일 교수들과 졸업생,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만학도를 산업계 전문가로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 설립 10주년 맞아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학과장 안득수)는 지난 2일 교수들과 졸업생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갖고 지난 발자취를 돌아봤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개설된 생명자원융합학과는 생명산업 분야와 농촌지원 분야를 융합한 교육을 통해 여러 직업군의 종사자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왔다.

특히 생명자원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산업계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재직자들을 선발해 리더십과 생명자원융합 분야의 전문역량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한편 생명자원융합학과는 올해

수시모집을 통해 정원 내 만학도 전형으로 10명, 정원 외 특성화고(구 실업계고) 졸업 재직자 전형으로 19명 등 29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나 종합고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사람이나 영농종사자, 또는 만학도로서 고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도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안득수 학과장은 “최근 들어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이나 자기 사업 목적의 진학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생명자원융합학과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전북대학교 일반 졸업생들과 동일한 학사학위가 수여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7일 오후 나전북지사 소통공간에서 ‘전북교육, 소통으로 통하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 소통으로 통하다’

서거석 교육감, 젊은세대 공무원들과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7일 오후 나전북지사 소통공간에서 ‘전북교육, 소통으로 통하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 교육감이 직접 젊은 세대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갑질 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기관 및 학교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청렴공연, 현장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감과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갑질의 기법 및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갑질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같은 지원 정책이 있는지, 갑질행위를 눈치 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MZ세대 직원들의 생각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블록과 미연시아와 고대 그리스’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재학생 작품 STEAM에 출시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는 재학생들의 작품을 전 세계 게임사 이트인 STEAM에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졸업작품으로 탄생된 이 작품의 팀장인 최지수 학생은 기획, 그래픽, QA 등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고, 프로토타입을 한 김진홍 학생은 게임의 시스템 구현으로 재미를 더했다.

이번에 출시된 ‘블록과 미연시아와 고대 그리스’ 게임은 플릭과 드래그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블록 머지 게임으로,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충우돌 교양 학습 게임이다. 팀을 지도한 고기환 교수는 “게임콘텐츠학과 학생들이 3인1팀이 개발한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진중하고 철학이라는 학문에 좀 더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게임콘텐츠학과 최초로 전 세계 게임 사이트인 STEAM(스팀)에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모두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제작해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게임콘텐츠학과가 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콘텐츠학과 강승목 학과장은 “열심히 게임 제작에 매진한 학생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주어 매우 기쁘다”며 “계속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박주용 부교육감 및 전북도교육청 본청 국·과장 2명이 9월 한 달간 도내 급식학교 현장 방문에 나선다.

‘안전한 학교급식 우리가 책임져요’

도교육청, 박주용 부교육감 등 간부공무원 21명 급식학교 현장 방문... 식재료 관리 실태 등 확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월 한 달간 도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주용 부교육감 및 본청 국·과장 21명이 직접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고,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확인 내용은 식재료 검수 시복수 대면검수 이행 여부 △급식시설 및 식재료 보관·관리실태 △학교급식 종사자의 위생관리 실태 △급식시

설 및 기구 등 안전관리 실태 등 학교급식 전반이다.

점검 후에는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계획에 반영하고, 급식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침이다.

이시기 문제제점강과장은 “학교 식중독 예방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해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됐다”며 “학교급식 실태 파악과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급식 환경개선 및 정책 반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11일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학생부종합전형 870명, 학생부교과전형 1981명 등 총 2995명 지역인재전형 범위 일부 호남권까지 확대, 수능최저기준 완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1~15일 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4,297명) 중 68.7%인 2,995명을 선발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70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981명, 예체능 실기 144명 등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해 2단계 면접을 실시한 뒤, 1단계 점수(70%)와 2단계 점수(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

한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등에 학생부 100%를 적용하고, 예체능 실기 전형은 학생부 외 실기고사 점수를 반영해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시 모집인원이 87명 증가했고, 지역인재전형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수시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은 전북권으로 선발했으나, 2024학년도 입시부터 호남권 전체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지역인재전형을 호남

권으로 확대한 1유형과 전북권 인재를 선발하는 2유형으로 나눠 전형이 이뤄진다.

지역인재전형은 총 6개 모집단위에서 569명을 모집하는데, 1유형(호남권)에서 460명, 2유형(전북권)에서 109명 등으로 나눠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이는 2023학년도 선발인원 대비 52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이전보다 완화됐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간혹 수의 약학 외예, 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년 예산정책 의견수렴 주민 공청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일 오후 2시 엔터워킹벤치웨딩홀에서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정책 의견수렴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 계획과 주요 재정사업 등을 도민에게 안내하고, 전북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북교육 발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예산편성에 담아내고자 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예산편성 의견



전북도교육청은 7일 오후 2시 엔터워킹벤치웨딩홀에서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정책 의견수렴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접수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방과후 및 돌봄 지원△기후 위기 및 미래 시대 대응 등에 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와 주

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북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도 교육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중 웨이팡시, 연 문화 홍보센터 구축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중국 웨이팡시(시장 류지연)가 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연 문화 홍보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조법중 교양대학장과 백종남(특수교육과) 교수, 일반대학원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석·박사 대학원생과, 중국 웨이팡시에서 류지연 시장과 장쯔하이 인민정부 비서장, 쉐윈송 문화관광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전문문화

증진과 학술연구 등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중국 웨이팡시는 민속 목판인쇄 및 연 생산으로 유명한 역사문화 도시로 해마다 4월 국제 연날리기 대회가 개최돼 ‘국제 연의 도시’라 불리고 있다.

우석대학교에 설치될 웨이팡시 연 문화 홍보센터는 조법중 학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발전과 한·중 우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